

추석 가정예배 순서

2025년 10월 6일(화)

인도_가족 중에서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야고보서 3:8-12 인도자

말씀 “한 입에서”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같이

주님의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 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알림

1. 설교문은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3:8-12

⁸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⁹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¹⁰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¹¹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¹²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설교문

“한 입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공손하고 조리있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말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됬됨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은, 현대인에게는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자,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8-9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며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누군가는 말을 통해 저주를 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매우 작은 지체지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입을 통해 다양한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여러 가정의 모여 오랜만에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행복해야 하는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명절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말’인데, 명절 기간 단골 소재로, 연봉, 회사 규모나 취업 관련, 대학 입시 또는 성적, 결혼 유무 및 시기, 정치적 견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입’을 통해 하는 ‘말’ 가운데에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한 저주를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샘은 절대로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내지 못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다른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입을 통해 타인을 저주하고,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의 입을 통해 나누는 대화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사랑이 가득한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추석에 한 가족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무엇보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 동안 나누지 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가정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가정, 생명의 말씀이 대를 잇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성: 이성실